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개최

-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클리닉 환자 4인 미술 작품 전시 -
-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 의미 되새겨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9월 1일(금)부터 10월 26일(목)까지 지하 1층 전시관 ‘갤러리 M’에서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를 개최한다.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치매 극복과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증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클리닉 65세 이상 환자 4인의 미술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작품에는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과 그리움, 노인 정신과 환자로서 내면의 느낌과 감정을 담아내었다. 전시회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작가분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창작의 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정신과 환자 및 그 가족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인 환자 작품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붙임> 1.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개요
 2. 전시회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노인정신과	책임자	과 장	임선진 (02-2204-0154)
		담당자	팀 장	최은희 (02-2204-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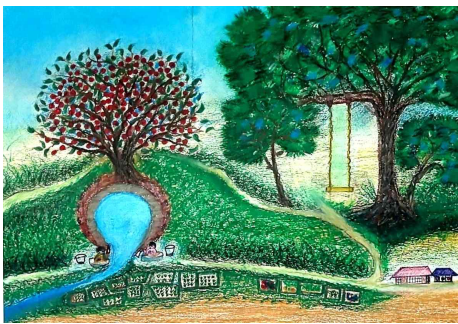

□ 목적

- ‘치매 극복의 날’과 ‘노인의 날’을 기념 65세 이상 노인 환자 미술 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치매 극복과 노인 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증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

□ 개요

- (전시회명)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치매 극복의 날 /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작품전시회
- (전시기간) 2023. 9. 1.(금) ~ 10. 26.(목)
- (전시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
- (전시작품) 센터 노인클리닉 어르신 4인의 미술작품 총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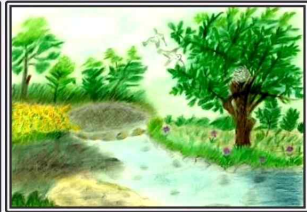
□ 전시작품 사진

	
<p>숲속의 연인들 (강호현)</p>	<p>옛날을 그리며-고향을 그리워하며 (강희경)</p>
	
<p>어린이들 (김은숙)</p>	<p>나의 살던 고향 (한순자)</p>

국립정신건강센터 갤러리M

사랑은 삶을 꽃피우네

.....
‘치매 극복의 날 /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작품 전시회



○ 전시기간: 2023. 9. 1.(금) ~ 10. 26.(목) * 주말, 공휴일 휴무

○ 전시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갤러리 M

○ 운영시간: 09:00 ~ 17:00 * 점심시간 휴관(12:50 ~ 14:00)

○ 전시작품: 센터 노인클리닉 65세 이상 어르신 4인의
미술 작품 총 15점

☎ 문의: 02-2204-0317